



여리포항

2011. 반상회보
www.ipohang.org
발간일: 2011-08-08

흔들리고 편안한 추석 만들다

고향 포항이 활, 달리졌어요

폐교가 제2의 교육장으로 재생

포트에세이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Rich*

파리한 입술이 떡어치우는 그녀를 사요
처음엔 그 이름에 깜빡 속았죠
길쭉한 황금을 퍼든 줄 알았거든요

당신의 흰 손가락 사이에서
부자가 되는 방식에 대해
부자가 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 골몰하기도 하네요

그녀가 추구하는 것은 부자의 영혼을 갖는 일,
타닥타닥 질 나쁜 소리로 빨려 들어가는 그녀는
싸구려 발성 대신 리치 얼룩을 남겨요

리치 같은 사람과
리치 같은 시간 속에서
리치 같은 말을 주고받고 아마 리치같이 죽을 거예요

붉게 연기를 피워 올릴수록 얼룩이 짙어져요
잊기 위해 마비되기 위해

도무지 뿌리칠 수 없는 저, 부유한 욕망

*담배

열린포항

www.ipohang.org



●● 05



●● 11



●● 13



●● 17

09 | 2011 CONTENTS

- 04 추석특집 | 고향 포항이 확, 달라졌어요
- 08 추석기획 | 훈훈하고 편안한 추석 만든다
- 11 포토에세이 |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 12 추석산책 | 폐교가 제2의 교육장으로 재생
- 14 문화&교양 | 문화공연, 문화단신
- 16 시정브리핑 | 90만 인파, 마법의 불꽃 쇼에 탄성 외
- 19 의정브리핑 | 포항시 행정조직 개정조례안 의결 외
- 20 포항레이더 | 독서의 달 기념 원북 저자 초청 강연회 외
- 22 포항사랑 | 자매결연 마을과 단체, 돈독한 우정 과시 외
- 23 갤러리 | 꿈을 꾸다 1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의 제4호 '기록사랑마을'로 지정된 포항시 북구 기록면 오덕1리 덕동마을에 자리한 이원돌 고택. 정면4칸, 측면6칸의 목조와가인 이 가족은 조선중기의 시대상을 잘 나타내고 있다.

표지사진 · 안성용
스글씨 · 이현정



발행처 | 포항시
발행인 | 포항시장 박승호
편집인 | 홍보담당관 이점식
편집담당 | 홍보담당장속경, 박주영
담당주소 | 790-72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1(대잠동 1001) 054)270-2233
발행일 | 2011년 8월 25일(통권 제97호)
기획·편집 | (주)금강미디어 054)275-0558
인쇄 | 성광인쇄 054)283-2162
홈페이지 | www.ipohang.org 열린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 포항이 혹, 달라졌습니다

인간의 고향은 어머니의 지궁일까. 고향이 그리운 계절, 9월이다. 올해 한가위는 양력으로 9월 12일에 들었다. 양력 10일은 토요일이다. 11일과 13일은 일요일, 화요일이고 황금연휴에 속한다. 이 황금연휴에 고향을 잊고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도 있겠다. 역마살이 들어 실 하나를 매달고 등실등실 떠다니는 풍선 같은 이라도 땃줄을 잘라준 제 고향을 잊을 수는 없다.

수구초심라고 했다. 이는 여우가 죽을 때 구렁을 향해 머리를 두고 초심으로 돌아감을 이르는 말로, 근본을 잊지 않는다, 또는 죽어서라도 고향 땅에 묻히고 싶어 하는 마음을 뜻한다. 이번 한가위에는 고향 땅에 뼈를 묻고 싶어 하는 이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새터민은 아아, 물이 막혀, 한 많은 대동강아, 변함없이 잘 있느냐, 모란봉아, 을밀대야, 네 모양이 그리운 이다. 그러나 터 잡고 정 붙이면 어딘들 고향이 아니라.

오곡백과가 맛있게 익고 보름달이 환히 떠오르는 한가위, 고향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길거리에는 현수막이 나붙어 고향에 찾아온 이들을 환영할 터이다. 북부해수욕장 데마거리에 있는 시계탑의 시계처럼 내 고향 시계는 24시간을 쉬지 않고 돌아가서 그동안 많이도 변했다. 그 변모를 알고 싶다면 이번 기회에 영일만항, 동빈부두 정비거리, 죽도시장, 상옥참느리마을 등을 둘러보는 게 어떨까.

영일만항



바다가 변해 뿔나무밭으로 변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있다. 포항 영일만항은 바다가 변해 항만이 된 기적의 케이스다. 눈비가 심하면 대중교통이 마비되던 곳, 어부들이 먼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던 곳, 방파제가 바다에서 돌아온 작은 어선들을 어미 품처럼 끌어안던 이곳 해안에 도로가 시원하게 뚫렸다. 새마을운동과 제철보국을 일으켜 민족의 가난과 절망을 변영과 희망으로 바꾼, 이른바 영일만의 기적을 이룩한 자랑스러운 도시 포항은 현재 동해안 최초 국제항만인 영일만항을 개항해 대양과 대륙을 관통하는 환동해 중심도시로 새로운 포항시대를 열었다. 북구 흥해읍 용한리 전면 해상에 위치한 경북 최대의 컨테이너 부두 영일만항은 전체 2단계 총 16상석

으로 컨테이너부두 잡화부두 유류, 시멘트 및 목재부두로 개발될 예정이며, 완공 목표 시점은 2020년이다. 대림산업, 코오롱건설 등 국내 6개 건설회사와 포항시가 컨소시엄으로 설립한 포항영일신항만주식회사는 민자사업으로 현재 영일만항 컨테이너 부두를 건설하고 있다. 완공시점에는 소유권을 국가에 넘긴 뒤 50년간 관리운영권을 보유하는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이 된다.

대구-포항간 고속도로와 기계-신항만 고속도로는 구미, 김천 등 대구, 경북권 대부분의 산업도시에서 포항영일만항으로 연결되는 가장 빠른 수송로 역할을 하게 된다. 중부 내륙 고속도로에서 분기되는 상주-영천간 고속도로를 통해 수도권과 중부권의 화물은 물론 경북 내륙지역 수출입 화물을 신속하게 영일만항으로 수송할 것이다.



동빈내항



당신은 이제 동빈내항에 와 있다. 당신은 아름다운 수상 도시 베니스에 가서 감탄사를 연발한 사람일지 모른다. 당신은 베네치아에서 멀리 떠나간 그대를 홀로 사모하여 「돌아오라, 소렌토로」 라도 불렀을 것이다. 기다리고 있노라, 돌아오라, 이곳을 잊지 말고, 돌아오라, 소렌토로, 돌아오라. 당신은 잊지 못할 추억에 목이 멘 사람일 것이다. 당신은 프랑스의 칸 해변으로 가서 짧은 불어 실력 대신에 손가락을 지켜 세워 극찬하기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한국에서도 포항 동빈큰다리에 연인과 함께 서서 동빈내항을 바라본다면, 당신의 연인은 풍네프의 연인이 아니라 포항의 연인이 된다.

밤이면 불빛이 아름다운 동빈큰다리, 죽도동에서 송도로 넘어가는 이 동빈큰다리 아래 물이 흘러간다. 흐르는 물이 썩지 않듯 동빈내항이 변하고 있다. 포항시에서 추진하는 동빈내항 복원사업은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오염이 극심하게 발생한 동빈내항 복원을 통해 지역상권 회복과 구도심 재생, 관광활성화 등을 목표로 한 사업이다. 지역주민들의 철거공사가 착수되면, 기존 시가지를 철

거하는 대규모 율타리가 쳐지고 21세기 선진국형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되어 동빈내항 수변 친수공간은 국제적인 해양관광명소가 될 것이다.

동빈내항 기본 컨셉은 동빈내항 옛 물길을 다시 이어서, 천혜를 입은 아름다운 항구 내항의 본 모습을 되찾고, 기능을 상실한 무역항 대체기능 개발과 주변도시 재생을 통한 수변도시로 새로운 변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기본 컨셉의 세부 항목으로는 동빈내항 복원(해도 수변 유원지), 주변 도시 재정비(뉴-타운), 해양공원 조성, 동빈부두 정비, 송도백사장 복구, 항만재개발, 타워브릿지 건설 등이다. 동빈내항이 복원되면 포항시는 도심 활성화의 원동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관광자원 확산에 힘입어 국제적인 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다. 이런 동빈내항에서 당신이 「돌아오라, 소렌토로」 나 「산타루치아」, 「오, 나의 태양」 을 부른다고 해도 도시락을 싸 들고 가서 뜯어 말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것은 당신의 자유이니까.



죽도시장



죽도시장은 60년 전 갈대밭이 무성한 포항 내항 늪지대의 노점상들이 들어서기 시작하여 형성되었다. 1969년 10월에는 죽도시장 변영회가 정식 설립되었다. 현재는 점포 수가 1200여 개에 달하는 경북 동해안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재래시장이다. 최근 들어서는 대형 할인매장의 포항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죽도시장 상인들은 사이버 죽도시장을 개설해 재출발을 다짐하고 있다.

포항의 중심지인 오거리에서 동쪽으로 500m 지점에 죽도시장이 있다. 수산물 위판장내에 횡집 200여 개가 밀집되어 사계절 저렴한 가격으로 동해안의 싱싱한 회를 살 수 있으며, 인근 상가에서 재료값만 내면 바로 먹을 수도 있다. 각종 건어물, 농산물, 수산물 등을 값싸게 구입하는 것

이 가능하다. 특히 포항의 명물인 과메기와 물회, 돌문어, 대게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

죽도시장에는 어머니의 손맛을 느끼게 하는 수제비 골목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저절로 풍성해지는 빵튀기 가게가 있고, 여인의 정성이 담긴 그릇을 파는 웅기가게도 있다. 자연미가 물씬 풍기는 죽세공품점, 영양 만점 수산물을 자랑하는 문어 삶는 골목, 정감 있는 먹을거리를 파는 식품거리, 싱싱한 바다의 맛을 한 상 차려 내놓는 회상가, 품질 좋은 맛을 자랑하는 건어물거리, 달콤한 맛을 선보이는 기름방골목도 죽도시장의 눈요깃거리다. 그릇점거리, 농산물거리, 분식점골목, 이불점거리, 전집거리는 사람들의 구매 욕구를 충족시킨다.

죽도패션거리는 서민적인 가격으로 손님을 찾지만 멋을 내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죽도패션의 매력이다. 당신이 만약 죽도시장 한복점거리에 간다면 명절 옷을 한 벌 해 입고 싶은 충동을 슬그머니 느낄 것이다.

곰상회, 금산인삼, 낙원떡집, 남진상회, 대림공예, 동진무역, 베비라, 부양청과, 서울떡집, 신성상회, 포항족발, 경동수산, 대동건어물, 삼정건어물, 우성상회, 울릉상회, 포항건어물, 화평상회, 개복치, 경북상회, 경주상회, 포항수협중매인59호 등이 있는가 하면, 왕고래고기집, 제일수산, 남빈로식당, 삼호복집, 유화초전복죽, 제일식육식당, 죽도식당, 동대구회식당, 상가5번회식당, 승리식당, 신승리식당, 12번회식당, 연화회식당, 할매회식당 등도 있다. 정겨워서 또 불러보고 싶지만 아이고야, 많기도 많은 가게들이 있는 곳, 죽도시장에는 없는 것 빼고 다 있다.



상옥참느리마을



상옥참느리마을은 포항시에서 동북방향으로 42km, 죽장면사무소에서 동쪽으로 20km에 위치한 전형적인 산간오지 마을로 동쪽은 영덕군 달산면, 남정면, 서쪽은 가사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남쪽은 청하면, 기계면, 기북면, 북쪽은 청송군 부남면, 부동면과 인접했다. 전체 면적의 95%가 임야이고 주민의 9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주 작목은 담배, 고추, 고랭지채소 등이었으나 점차 담배 식부면적이 줄고 사과, 약초, 산채, 여름시설하우스농사 토마토, 오이, 브로콜리, 적채 등 고소득 작목으로 식부면적이 늘고 있다. 전 지역의 자연경관이 수려한 청정 지역으로 여름피서지, 오지마을 여행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밤낮의 일교차가 심한 고랭지 지역이라 각종 농산물 병해충이 적고 과일 당도가 높아 유기농업 적지로 유명하다. 특산물로는 토마토, 사과, 감자 등이다.

특산물 중 상옥토마토는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무농약 인증 토마토로 생산량 40%는 유기농 인증을 획득했다. 육질이 단단하고 상온에서도 쉽게 무르지 않는 게 특징이다. 수정 벌을 이용해 속이 짙은 뿐만 아니라 당도가 높고, 지역의 토양 특성상 게르마늄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토마토는 피로를 방지하는 가장 대표적인 식품으로 과당과 포도당뿐만 아니라 비타민 C와 비타민 B1, B2를 다량 함유한 먹을거리다.

상옥사과는 당도가 높고 빛깔이 뛰어나고 과육이 단단하며 저장성이 좋다.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하고 생산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아삭아삭하게 씹히는 맛이 뛰어나다. 신맛은 거의 없고 당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대표 품종은 후지(부사), 홍로, 쓰가루(아오리)다. 후지(부사)는 사과의 대표적 품종이다.

상옥감자는 고랭지 감자로 재배면적은 5만 평 정도다. 한랭한 지역의 기후와 배수가 잘되는 곳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품질이 우수하다. 상옥감자는 무기질과 비타민 C, 비타민 B 등을 다량 함유하고 있고, 아미노산을 골고루 가지고 있는 단백질과 필수아미노산 라이신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좋은 품질로 평가받고 있다.

훈훈하고 편안한 추석

추석 연휴(9월 11일~13일)가 다가오고 있다. 예년과 달리 이번 추석은 보름 가장 빠르다. 그래서 시민들의 마음이 더욱 비빠지고 있다. 그리고 귀향객은 물론 귀성객들이 불편 없이 넉넉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챙겨야 하는 포항시의 추석대책도 분주한 모습이다. 최대 명절인 추석은 친척들이 한 자리에 모여 조상의 덕을 기리고, 넉넉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며 즐겁게 하루를 보내는 날이다. 이런 추석을 앞두고 이제는 연례행사가 되어버린, 이른바 민족대이동은 교통체증과 사고 등 각종 불편과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추석에 따른 각종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는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여 시민과 귀향인사들이 포항에서 편안하고 넉넉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가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추석 차례 상 준비는 재래시장에서

특히 올해는 긴 장마와 집중 호우, 태풍 등으로 과일과 채소 가격이 급등하면서 추석물가가 비상이다. 어려운 서민경제는 더욱 압박을 받고 있다. 올해 추석 상을 차리는 데는 4인 가족 기준으로 23만 8,200원이 예상되어 지난해 19만 7,000원보다 무려 20.9%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때문에 포항시도 9월부터 추석 전까지 본격적인 '추석물가관리'에 들어간다. 관계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열고, 물가대책상황실도 설치·운영한다.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추석 성수품 수급 및 가격 안정에 나선다.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도 소비자단체와 물가지출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아울러 재래시장 이용하기 범시민 운동을 전개한다. 죽도시장 등 재래시장 리브투어를 늘리고,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고향상품 애용을 적극 권장한다. 지역 언론매체의 협조를 받아 이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그리고 귀성객 이동을 돕기 위해 특별수송에 나선다. 이를 위해 도로·교통 관련 기관·단체와 함께 교통소통 상황관리 및 교통사고 신속대처를 위한 특별수송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일부 상습 정체구역에 대해서는 우회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해 대합실 등에 대한 환경을 정비한다.

추석연휴 3일간 각종 사고에 대비한 종합상황실 운영

포항시는 추석연휴 3일간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재난·재해관리는 물론 교통·청소·환경·도로·보건의료·급수 등 각종 대책반을 종합적으로 가동하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무엇보다 이번 추석이 예년에 비해 보름 정도 빨라 식중독 등의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추석음식 위생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하면서 응급환자 후송 및 비상진료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각급 의료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119구급차 등과 연계한 긴급후속체계도 구축한다. 당직 의료기관 및 당번 약국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급수 및 기동복구 체계도 구축한다. 시가 보유하고 있는 급수차량을 상시 대기시키고, 소방서 급수차량 지원체계도 갖춘다. 민원 상시 처리체계도 구축하여 당직 및 비상 근무자가 민원서류를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넉넉한 추석보내기 운동 전개

이번 추석은 고물가로 인해 저소득층의 추석나기가 특별히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불우시설 및 가정을 위문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활동을 전개하면서 자생단체 및 시민의 참여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즐겁고 활기찬 추석보내기 운동을 전개한다. 추석 연휴 기간 중 공연, 연주 등 문화행사를 통해 귀향인사와 시민들이 즐거운 추석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방문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통령 고향마을에 대한 환경과 각종 편의시설을 정비하여 방문객들에게 전통놀이, 전시회, 체험행사, 특산물판매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추석 차례 상 차리기

차례 상은 각 지방이나 가정의 전통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제사 음식을 제수(祭需)라고 하는데 밥을 메, 국을 갱, 송늬을 숙수라고 하는 등 특별한 이름으로 부른다. 밥은 그릇에 담아 밥뚜껑을 덮고, 국은 흔히 쇠고기 무국을 쓰고 덮개를 덮는다. 송늬은 냉수 혹은 더운 물에 밥알을 조금 푼다.

술(제주), 식초(초집), 간장(청장), 떡(편), 찌개(탕), 부침개(전), 구이(적), 포(어포, 육포 등), 식혜(혜), 나물(숙채), 과일(과실) 등은 신위 수와 상관없이 준비한다. 예를 들어 두 분을 한꺼번에 모신 경우에는 밥(메)과 국(갱)은 2벌이다.

술은 맑은 술을 준비한다. 식초와 간장은 종지에 준비한다. 떡은 보통 시루떡을 쓴다. 찌개(탕)는 어탕, 육탕, 계탕 등 홀수로 여러 가지를 올리기도 하고 재료를 3가지를 써서 한꺼번에 만들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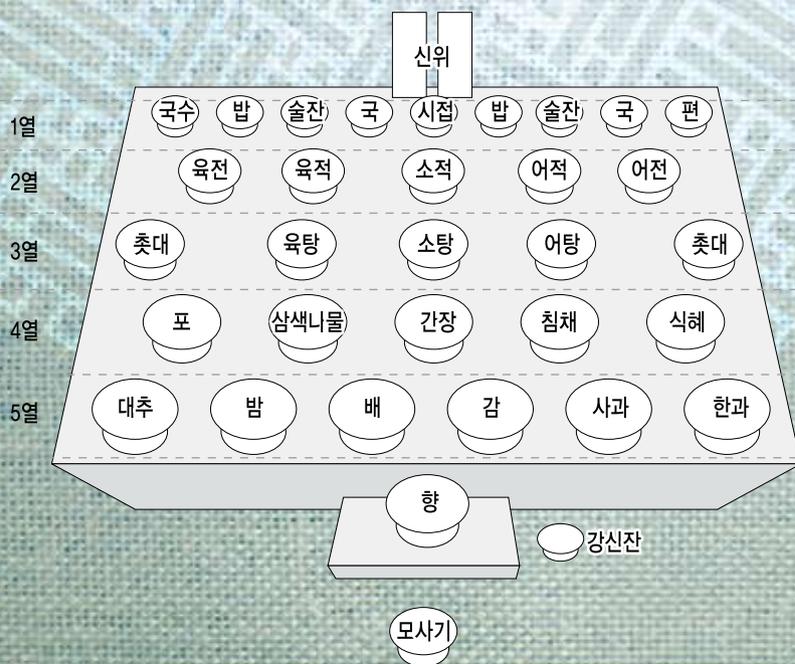
부침개는 고기전, 생선전 등을 준비하고 구이는 조기, 쇠고기, 닭 등을 쓴다. 포는 어포, 육포 등을 준비하는데, 어포의 경우

등이 위로 가게 담는다. 식혜는 식혜 건더기를 담는다. 나물은 색이 다른 3가지를 한 접시에 담는다. 과일은 째수로 준비하고, 모든 제수는 향신료(마늘·후추·고춧가루·파)를 쓰지 않고 간장과 소금만으로 조리한다.

제사상은 신위가 있는 쪽을 북쪽이라고 본다. 따라서 제주가 있는 쪽이 남쪽이고, 제주가 바라볼 때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이 된다. 보통 5열로 상을 차리는데, 신위가 있는 쪽을 1열로 본다. 상 앞에 향로, 모사그릇, 퇴주그릇 등을 준비한다.

- 1열 : 시접, 잔반, 밥과 국을 올리고, 편 위에는 송편을 올려놓음.
- 2열 : 어동육서(魚東肉西)로 생선은 동쪽, 고기는 서쪽.
두동미서(頭東尾西)로 생선의 머리는 동쪽, 꼬리는 서쪽.
- 3열 : 생선탕, 두부탕, 고기탕 등의 탕류를 놓음.
- 4열 : 좌포우혜(左脯右醢)로 좌측 끝에는 포, 우측 끝에는 식혜.
- 5열 : 조올이시(棗栗棗柿)로 왼쪽부터 대추, 밤, 배, 감순으로 놓음.
홍동백서(紅東白西)로 붉은 과일은 동쪽, 흰 과일은 서쪽.

(자료제공 : 포항문화원)



차례상 준비 시 유의점

- 복숭아와 삼치, 갈치, 콩치 등 끝에 치자가 든 것은 쓰지 않음.
- 고춧가루와 마늘양념을 하지 않음.
- 붉은 팔은 안 쓰고 흰 고물을 씀.



내 고장은 바야흐로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글 | 정차준 사진 | 안성용

고향의 맛과 빛깔을 시창자들에게 언제나 구수하게 전달하는 KBS 1TV 시사교양 프로그램 『6시 내 고향』을 반드시 떠올려야만 내 고장이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일까. 아니다. 그렇지 않다.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이육사(李陸史, 본명 이원록李源祿, 1904~1944) 시인이 호미꽃과 가까운 남구 동해면 일월동 옛 포도원에서 시상(詩想)을 떠올려 지었다는 시, 「청포도」. 그것을 기념해 남구 대보리 호미꽃에 들어선 「청포도」 시비(詩碑)의 크기는 가로 3m, 세로 1.2m, 높이 2.5m다. 영남대 홍성문 교수가 디자인한 고인돌 조형물에는 손춘익 아동문학가가 비문을, 정현식 서예가가 글씨를 맡았다.

「청포도」 시비 앞에 서면 우리는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흰 돛단배가 곱게 밀려서 오는 내 고향 동반내항의 황포돛단배를 상상하게 된다. 내 고장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풍요를 또한 어떻게 떠올리지 않을 재간이 있을까. 「청포도」 시비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제 감옥에서 수인번호 64번을 달아야 했던 한 시인의 아름다운 꿈을 돋을새김한 조형물이다.

『육사 시집(열린책들, 2004년)』에 해설을 맡은 이남호 고려대학교 국어교육학과 교수는 "「청포도」는 싱그럽고 귀족적인 이미지들로 짜여

진 매우 고상한 미학을 보여 주는 작품으로 주목된다. 이 시에서 엿볼 수 있는 시인의 정신적 고결함도 감동적이긴 하지만, 그보다 청포도, 은쟁반, 모시 수건 등이 형성하는 우아한 귀족적 분위기는 우리 시의 전통에서 드물게 보는 것이다."라며 「청포도」를 평가했다. 시를 낭송하거나 암송하고 느끼는 독자의 몫을 또 잠시 방해한다면, 혹자는 「청포도」 속에 등장하는 '은쟁반'이 화평한 미래의 삶을 향한 순결한 소망을 암시한다고 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은쟁반인가.

죽도시장 한 귀퉁이 좌판에서나 골목길 전봇대, 동네 아파트 트럭 앞에서 "은수저 삽니다."라는 문구를 가끔 목격할 때가 있다. 상인이 은수저를 사들여서 어디에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은은 금처럼 값이 나가는 물건임이 분명하다. 『본초강목』과 『동의보감』에서는 은이 명(命)을 길게 하고 풍(風)을 없애는 것이라고 했다. 사극 같은 데서 보면 왕에게 올리는 음식에 독이 들어 있는지 아닌지를 감별할 때 사용한 것이 은수저다. 은은 중세 유럽에서 페스트가 만연할 때 왕족이나 귀족이 은식기나 은 집기류를 사용해 전염병을 막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 몇 가지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청포도」 속에 등장하는 '은쟁반'은 어딘가 건강하고 귀티가 나는 그릇임을 틀림없어 보인다.

은쟁반에 열매가 익어도 푸르스름하고 겹질이 얇으며 단맛이 나는 청포도를 담는다고 상상해보라. 절로 군침이 돌지 않을까.

조국 광복 66주년인 올해는 이육사 시인이 그토록 꿈꾼 청포도 '시절'과는 다른, 시절도 하 수상한 시절이다. 일본해나 동해나 코리아해나 나라 안팎이 시끄러울 때, 지나는 길손이여, 호미꽃에 생긴 「청포도」 시비 하나로 내 고장은 청포도 맛과 청포도 빛깔이다. 인간의 분향, 그 달콤하고도 맑은 시심이 '알알이' 녹아 흐르는 「청포도」 시비가 있어 내 고장은 지금 청포도다. 「청포도」 시비는 그의 고향이 어디든 수렴해서 다 함께 풍요를 갈망하는 듯하다. 풍부한 해산물의 오랜 창고인 호미꽃 바다 저 멀리에서는 갈매기도 그 풍요를 즐기고 싶을지 끼룩끼룩 날아 다닌다.



문화유산 5,000여 점 전시된 민속박물관

포항시가 제2의 포항으로 재생

"역사는 끊임없이 변천합니다. 이곳은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들이 공부하고 자란 계원초등학교입니다. 나는 이곳에 우리 전통문화의 전당으로 계승하기 위해 민속박물관을 건립했습니다. 이 박물관을 통해 역사 지식을 고양하여 국가의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장차 나아갈 바를 정확히 예단할 수 있는 훌륭한 역사의 눈을 가진 인재의 많은 탄생으로 우리 겨레의 영원하고 무궁한 번영과 발전에 기여하기를 염원하며 이 박물관을 개관했습니다."

이 말은 포항시 남구 장기면 계원리 38에 위치한 [손재림문화유산전시관]을 운영하는, 국내 중풍치료 권위자인 영천순한방병원장 손재림(72) 박사가 전시관을 건립한 이유이다.

장기면 소재지에서 경주 감포읍 쪽으로 가다보면 계원리 황계마을이 나오고 도로에서 왼쪽 마을로 나 있는 골목길 1백여 m로 들어가면 손재림문화유산전시관이 한 눈에 들어온다.



이곳은 지난 2005년에 폐교된 양포초등학교 계원분교 - 옛날 영화 <처녀뱃사공>의 무대였고, 이 학교 학생들에게 빵 한 조각으로 아이들이 우르르 뛰어 오는 장면을 연출했던 곳이라고 함 - 로서 손 박사가 매입·리모델링 과정을 거친 후 지난해 11월 후손을 위한 제2의 교육장으로 문을 열었다.

개인 박물관으로는 언뜻 보기에도 규모와 시설 면에서 만만치 않은 투자가 있었음을 느끼게 한다. 부지가 8천200여㎡에 달하는 민속박물관으로, 손 박사가 지난 20년 넘게 수집한 다양한 문화유산 5천여 점이 전시되어 있고, 시가로 계산하면 무려 50억 원에 달한다.

박물관 입구에 들어서면 연인원 300명의 석공이 동원된 거의 실물에 가까운 첨성대 모조품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손 박사는 현존하는 동양 최고의 천문대인 첨성대를 우리나라 최고의 문화재로 여기고 있다.

박물관 앞뜰에 마련한 <야외전시관>에는 첨성대 외에도 다양한 볼거리가 눈길을 끈다. 무엇보다 전시물 하나하나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 그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다. '동해해맞이바위', 즉 바위에 난 구멍을 통해 일출을 보면 모든 근심과 걱정이 순식간에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귀에 쏙 들어온다.

또 각양의 모습과 이름도 정감 있고 재밌다. '천수암'에 한번 앉으면 그 기를 받아 10년을 더 살고, 한번 누우면 20년을 산다고 한다. 넋지시 한번 누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자손의 번영과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다산석', 남녀 간의 간절한 애정을 보여주는 '다정석', 화재나 재앙을 물리치는 신수(神甬)로 여겨 궁궐 등에 장식되던 국내 최고(最古)의 '해태상', 이 바위에 기도하면 가족에게 만복을 주는, 단 옷어야 한다는 '만복암', 연자방아, 100년 전에 사용하던 우체통 등이 있다.

박물관은 야외전시관 외에 민속전시관, 화폐전시관, 한의학전시관 및 역사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속전시관은 전통혼례 모습을 재현했는데, 당시 사용되는 가마, 혼례복, 반달이 등 각종 생활용품들이 즐비해 있다. 그리고 비녀, 신라도기, 두지, 팽과리와 징, 가위, 경대, 대비기, 풍구, 함고, 촛대, 목화와 물레, 베틀 등이 전시되어 있다. 특히 옛 여인들의 애환이 묻은 베틀과 부속품들은 전국민속박물관 중 가장 많은 자료를 소장하고 있을 만큼 수십 점의 희귀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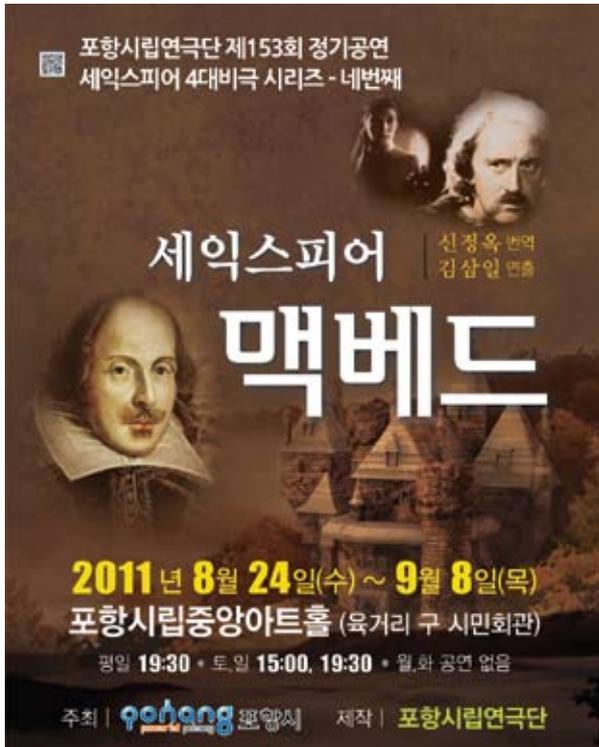
화폐전시관은 조선시대 엽전은 물론 우리나라의 근현대 동전과 지폐 등이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고, 세계 각국의 지폐도 전시되어 있다. 특히 고종 30년(1893)에 발행되어 대한제국 최초의 화폐가 된 호조통화태환전 견본은 현재 시가가 1억여 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 화폐는 국내의 6장 중 한 장이다. 그리고 2장 전시된 '무사 천 원' 권도 시가가 각 4천500만 원에 이른다고 한다.

한의학전시관 및 역사관은 특히 과거 한약방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관심을 끈다. 40여 년간 몸 담은 한의학 등을 비롯한 고서적, 희귀약재 등이 전시되어 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첨성대, 천수암, 동해해맞이바위, 전통혼례, 베틀, 각종엽전

시립연극단 제153회 정기공연 맥베드



- **출 연** : 연출/김삼일, 작/셰익스피어, 번역/신정옥
- **입 장 료** : 일반 10,000원, 학생 5,000원, 20인 이상 단체 문화회원 약 30% 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 다자녀할인 등 3,000원
- **관람연령** : 초등학교 이상
- **예매방법** : 인터넷(포항시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접속→메뉴 '공연예매'→온라인 티켓링크 예매)
- **전 화** : 272-3033(공연기획담당)
- **방 문** : 문화예술회관 내 관리사무실(2층)
포항시립중앙아트홀 매표소(2층)

시립교향악단 제14회 정기연주회

- **일 시** : 2011. 9. 23(금) 19:30
- **장 소** :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출 연** : 시립교향악단(지휘/유종)
바이올린/김경민, 첼로/백희진, 피아노/엄희경
- **프로그램** : 에그몬트 서곡/베토벤, 삼중협주곡/베토벤 외

부모님과 함께 듣는 중 교과서 음악회

- **일 시** : 2011. 9. 8(목) 19:30
- **장 소** :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출 연** : 시립합창단(지휘/공기태), 시립교향악단원 12명 테너/김완준
- **프로그램** : 몽금포타령, 도레미송 외 중1 교과서 수록곡 다수

시詩가 흐르는 여름밤 숲속을 책과 함께 해요!



『외로우니까 사람이다』의 저자인 정호승 시인이 시를 낭송하고, 포항아트챔버오케스트라 연주가 포항의 여름밤을 아름답게 수놓았다. 2011 휴가철 숲속 문고 & 북 콘서트 '시가 흐르는 여름밤'이 8월 3일 환호해맞이공원에서 개최됐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주최하고 포항시립도서관이 주관한 이날 행사는 1천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북 콘서트, 체험행사, 전시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정호승 시인은 「바닷가에 대하여」, 「내가 사랑하는 사람」, 「수선화에게」 등을 낭송하며 시민들과 가슴을 맞대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에 앞서 '휴가철 숲속 문고'가 운영돼 국립중앙도서관이 선정한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 80여 종을 시민들에게 선보였으며 '알뜰도서교환전', '문학서평으로 만나다', '추억의 만화방', '난타체험 '신나게 두드리며'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와 부대행사도 함께 펼쳐졌다.

도심거리, 문화예술 공간으로 '한골탈태'

포항 도심거리가 시민들의 문화예술공간으로 화려하게 변신하고 있다. 지난 8월 3일 제11회 포항바다국제연극제가 중앙상가 실개천에서 열렸고, 이에 앞서 '육거리 문화공간갤러리전'이 7월 25일부터 육거리 일원에서, 7월 18일에는 '청소년 문화 존 대축제'가 중앙상가 실개천에서 열리는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과 전시회로 육거리 일대가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제11회 포항바다국제연극제는 '젊은 거리! 자유로운 도전! 예술의 바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8월 7일까지 5일 동안 중앙상가 실개천에서 열려 노르웨이 허스테이 팀 등 9개국 34개 팀이 130회의 공연을 펼쳤다. 올해는 기존의 환호해맞이공원에서 중앙상가실개천거리 전체로 무대를 옮겨 관객과 거리를 좁히고, '야외거리공연'이라는 새로운 콘셉트를 선보여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시원한 바닷바람 맞으며 책 읽으세요

포항시립도서관은 북부해수욕장을 찾아온 관광객들을 위해 다양한 장르의 도서를 갖춘 '참작은도서관 책이랑 바다랑' 문고를 운영해 피서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지난 2009년 7월에 개관한 '참작은도서관 책이랑 바다랑' 문고에는 소설을 비롯한 일반교양서, 아동도서 등 피서지에서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도서 1,700권을 비치하고, 여름휴가를 즐기기 위해 찾아온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책 읽는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 문고는 해수욕장 운영기간 중 휴일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문을 열었다. 한편 현재 포항시내에는 북부해수욕장 작은도서관을 비롯해 23개의 작은 도서관이 운영 중에 있다.

기북 덕동마을 '제4호 기록사랑마을' 지정



포항시 북구 기북면 오덕1리 덕동마을이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의 제4호 '기록사랑마을'로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덕동마을은 강원도 정선군 조동8리, 경기도 파주시 파주마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성리에 이은 네 번째 지정이다.

덕동마을은 1911년에 측량한 마을 임야도면과 200여 년 이전에 생산되었다고 추정되는 호적단자를 비롯하여 송계 숲과 세덕사의 역사를 나타내는 중요한 마을기록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과거 마을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1,000여 점의 유물들을 보유하고 있다.

기록사랑마을 지정 사업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에서 지난 2008년부터 민간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마을의 역사, 문화, 인물 등에 대한 그 마을의 생활상 및 특색을 나타내는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는 마을을 발굴·선정하는 것이다. 기록사랑마을로 지정되면 마을 소장 기록물의 탈산(脫酸)소독 및 훼손 기록물의 복원 등 기록관리 컨설팅과 더불어 민간분야 중요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기록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90만 인파, 마법의 불꽃 쇼에 탄성



제8회 포항국제불빛축제 메인행사인 국제불빛경연대회가 90만 명의 관광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8만5,000발의 환상적인 불꽃을 터트리며 북부해수욕장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았다.

지난 7월 30일 포항 북부해수욕장에서 펼쳐진 축제 개막식에서 중국, 호주, 포르투갈 등 세계적인 연화 팀이 연출한 환상적인 불꽃 쇼가 이를 지켜보는 관광객들을 감동의 물결로 이끌었다. 특히 우승을 차지한 중국의 '써니(sunny)'사는 중국 특유의 풍부한 물량과 화려한 색

감으로 아름다운 불꽃을 연출해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포르투갈과 호주는 그 뒤를 이었다.

이날 불꽃 경연대회에 앞서 '연오랑세오녀'의 일월 신화를 주제로 한 공연이 깊은 인상을 남기기도 했으며, 불꽃축제가 끝난 후에는 DJ 루피와 림지가 함께하는 신나는 불빛 댄스파티가 한바탕 벌어져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번 축제는 4일간 125만 명의 관광객을 불러 모으며 불빛 축제 사상 최대 인파를 기록했다.

결혼이민여성, 헤어디자이너의 꿈을 향해



결혼이민여성들이 헤어디자이너의 꿈을 향해 도전한다. 포항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박정숙)는 8월 8일 결혼이민여성들의 재능과 끼를 계발하여 안정적인 장기적인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자 헤어 국가자격증반 개강식을 가졌다.

이번 헤어 국가자격증반은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우즈벡 등 각 국가별로 미용에 재능과 관심이 있는 결혼이민여성 20여 명을 선발해 8월부터 6개월 과정(주5회)으로 이론과 실습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교육은 뷰티인 아카데미 미용학원에서 위탁으로 진행되며, 국가자격증 취득 후 현장에서 활동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애인 일자리는 커피 향을 타고



정신지체장애인들이 커피를 뽑아내는 커피전문점 카페 '히즈빈스' 시청점이 7월 28일 시청 지하 1층에 개점했다. 포항시는 지난 3월 포항시립중앙아트홀에 '히즈빈스' 2호점을 개점해 지속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다. 박승호 포항시장은 오픈식에 참석 '장애인들에 대한 최고의 복지는 이들이 잘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인 만큼 장애인들이 어렵게 만든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남·북구청은 물론 포항에 있는 모든 공공 기관 및 단체에 대해서도 히즈빈스를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히즈빈스 시청점에 드는 사업비 3,470만 원 가운데 시비 2,5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연내 4호점 개설을 서두르고 있다.

짚신 신고 짚 축구공 차던 60년 전 경기 '재연'



지난 1947년 면민들이 광복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시작된 신광면민 축구대회가 올해로 60회를 맞았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개막식에서는 지난 1947년 8월 15일 짚신을 신고 짚 축구공을 차던 첫 대회 경기 모습이 재연돼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신광면민 친선축구대회는 36년간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조국을 잃은 울분을 달래고 광복의 기쁨을 후대에 남기기 위해 광복 후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1947년 8월 15일 제1회 대회가 열린 이후 지금까지 6·25 전쟁과 기뭄 등으로 취소됐던 5년을 제외하고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계속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신광면민 친선 축구대회다.

이번 대회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13일 개막식에 펼쳐진 60회 기념 '짚신 신고 짚 축구공 차기' 시범경기. 박승호 포항시장과 이병석 국회의원을 비롯한 내빈들과 신광면 자생조직단체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947년 첫 대회의 상황을 재연하기 위해 직접 한복을 입고 짚신을 신고 짚으로 만든 축구공을 차는 시범경기를 펼쳤다.

짚으로 새끼줄을 꼬아서 축구공과 골 네트를 만들고 선수들이 짚신과 맨발로 공을 차며 첫 경기를 치렀던 이 축구대회는 1950년부터 3년간은 6·25로 개최되지 못했고, 기뭄과 병해로 2번의 대회가 취소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는 신광면의 전통문화로 발전했으며, 나아가 포항이 자랑하는 또 하나의 문화축제로 거듭나고 있다.

여름방학 중 결식아동 예방 '만전'

포항시가 여름방학 중 아동급식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급식지원을 실시하는 등 결식아동 예방에 노력했다. 시는 여름방학 아동급식 신청자 중 지원기준에 적합한 아동 4,667명을 선정해 여름방학 기간인 7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 지원했다. 이번 급식지원은 43억 원의 예산으로 1인당 1식(중식) 3,500원 기준으로 지원을 실시했다.

급식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2,080명, 차상위계층 1,043명, 기타 1,544명 등 총 4,667명이며 급식대상 아동들은 여름방학 기간 동안 91개소의 단체급식소, 일반음식점, 도시락배달업체 등에서 급식을 제공받았다.

뜨거운 여름, 포항 해수욕장에는 행사가 '풍성'



'포항으로 오면 다양한 체험행사와 흥겨운 공연이 가득해요.' 맨손으로 오징어를 잡고, 족석에서 물화와 회비빔밥을 즐길 수 있는 '오징어 맨손잡기 체험' 행사가 8월 6·7일 양일간 구룡포해수욕장에서 열려 피서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구룡포 청년회의소는 이틀간 4회에 걸쳐 해수욕장 바다 그물 안에 오징어 6,500여 마리, 방어 900kg 등 신선한 활어를 풀었다.

월포해수욕장에서는 전통그물당기기 체험행사인 후릿그물당기기가 8월 12일에 열렸다. 청하면은 후릿그물 당기기에 관광객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자 8월 6일에 이어 다시 한 번 행사를 열었다. 후릿그물 당기기는 육지에서 그물을 잡아당겨 고기를 잡는 동해안 전통 어업 방식이다.

북부해수욕장에서는 8월 5일 저녁 8시 30분 전통과 퓨전 국악이 만나는 '한여름밤의 흥' 행사를 열어 포항민속예술단의 부채춤과 가야금 병창 등을 통해 피서객들에게 흥겨움을 선사했다.

사이버 시장실, 시민들과 한층 가까워진다

포항시 시장실과 시민들의 거리가 한층 가까워진다. 포항시는 8월부터 시장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사이버 시장실 모바일 웹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장실 모바일 웹서비스는 열린시정, 포토영상 등 5개 주요 메뉴와 인사말, 주요일정, 주간동영상, 시정주요뉴스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관련 정보를 볼 수 있다.

특히 특정 운영시스템에 관계없이 다양한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으로 구성됐으며, 시민들이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스마트폰으로 바로 촬영해 사진과 함께 등록할 수 있는 파일업로드 앱과 연동한 것이 특징이다.

서비스 접속방법은 스마트폰 브라우저 주소란에 m.mayor.jpohang.org를 입력하거나 또는 mayor.jpohang.org 접속 후 상단 좌측 화면에서 모바일 버전을 클릭하면 된다.

포항의 대표 명품식품, 한자리에 모였다



포항을 대표하는 명품식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포항특산물카페'가 7월 22일 포항 죽도시장 공영주차장 안에 오픈했다. 이 카페는 포항명품식품협의회 회원사들이 포항시의 우수식품을 널리 알리고자 시설자금을 분담하고, 포항시의 적극적인 관심에 힘입어 문을 연 카페다.

이곳에는 해맞이 빵, 경상도 강정, 이도의 한방발효차, 미도수산의 과메기와 각종 수산물, 범촌의 궁중 장아찌와 약선밥, 죽장연의 전통장류, 가득한 떡시루의 떡, 포항불로주, 경우식품, 친정집 김치 등 참여회원사들의 제품이 상설전시·판매되고 있으며, 그 제품들만을 이용한 카페를 운영해 포항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포항시의 우수한 맛을 알리게 된다.

포항명품식품협의회는 수익금의 3%를 포항시장학회에 기부기로 결의하는 한편,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친환경 농산물, 수산물 등 일정 기준을 통과하는 뛰어난 제품들을 공동홍보, 마케팅해 지역사회와 생산자와 가공업자간의 공동협력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포항시, 재정조기집행 경북 최종평가 1위

포항시가 재정조기집행 최종평가에서 경상북도 시부 1위를 차지했다. 시는 6월 말 경북도 평가에서 조기집행 대상액 3,555억 원 중 3,573억 원을 집행해 100.51%를 달성했으며, 시부 1위를 달성해 7월 27일 경북도로부터 행정안전부 포상금 1억 원과 경북도 포상사업비 1억5,000만 원 등 총 2억5,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말 평가에서도 재정 미집행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며 사업별로 책임자를 지정, 매일 상황을 점검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전략을 펼쳐 시부 1위로 포상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받은 바 있다.

영일만항 7개월 만에 지난해 물동량 초과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부두가 7개월 만에 물동량 7만 2,535 TEU를 처리해 지난 한 해 전체물동량인 7만 2,421

TEU를 넘어섬에 따라 올해 목표물동량인 15만 TEU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포항시에 따르면 영일만항 컨테이너부두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월간 1만 TEU 이상의 물동량을 처리한 바 있으며, 특히 5월에는 지난 2009년 8월 개장 이래 월간 처리물동량으로는 최고치인 1만3,456 TEU를 처리했다.

영일만항의 7월 말 현재 누계 물동량은 지난해의 2만9,411 TEU 대비 147% 증가했으며, 주요 품목으로 수출의 경우 자동차, 코일 등이며, 수입은 스크랩, 내화벽돌 등 주로 철강 및 자동차관련 제품이 주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일만항의 이 같은 물동량 증가는 포스코 및 계열사의 수출입 물동량과 쌍용자동차의 러시아 수출물동량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올해 상반기 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 신청을 접수한 결과 포스코 및 계열사는 1만2,702 TEU, 쌍용자동차는 9,888TEU를 신청함으로써 영일만항 물동량 증가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벼 병해충 항공방제 실시

포항시는 송라면, 기계면을 시작으로 항공방제가 가능한 연일 흥해, 신광, 청하, 송라, 기계, 기북 8개 읍면의 5,358ha에 대한 벼 병해충 항공방제에 들어갔다. 포항시는 약 4억6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항공기 임차 및 소요농약을 구입하고, 들녘별 일시 공동방제로 병해충방제 효과 극대화는 물론 고령화 부녀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촌의 노동력을 절감하게 됐다.

이번에 실시된 항공방제는 잎도열병과 목도열병, 벼멸구, 흑명나방 등을 중점 방제했으며, 장마철 계속된 흐린 날씨와 일조량 부족으로 벼의 체질이 연약하게 자람에 따라 이번 항공방제가 벼 병해충으로 인한 벼 수량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벼 친환경 재배단지인 흥해읍(양백리), 기계면(성계, 구지, 인비리 등), 기북면(대곡, 울산리) 580ha에 대해서는 친환경제제를 살포해 고품질 친환경 쌀을 생산하게 된다.

제177회 임시회, 포항시 행정조직 개정조례안 의결



포항시의회의장 이상구는 제177회 임시회를 7월 28일 1일간 개최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그동안 쟁점이 되어 왔던 '본부 4국 4담당관 5팀 24과'의 포항시 행정기구 개편을 담은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였다. 이상구 의장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행정의 공백으로 일반 시민들이 불편하거나 행정업무에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집행부 공무원들에 주문 했다.

포항시의회, 7월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

▶ 의회운영위원회



포항시의회 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동찬)는 지난 7월 28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제177회 임시회와 제17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했다. 제177회 임시회는 7월 28일 1일간, 제178회 임시회는 오는 8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개최하기로 했으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소관 조례·규칙 개정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 총무경제위원회



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 이재진)는 영일만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행정조직개편 계획안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4차례에 걸쳐 재보고를 받고 다각적으로 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 7월 22일에 의결했다. 총무경제위원회는 보건소 직제 등 조직개편 이후 대시민서비스 약화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 보사산업위원회



보사산업위원회(위원장 복덕규)는 지난 7월 19일 호동 매립장 내에 위치한 생활쓰레기 선별 압축포장시설의 설치 상황 현장을 방문했다. 폭염 속에 진행

된 현장방문에서 의원들은 생활쓰레기 선별 압축포장 시설이 조기에 완공되어 쓰레기 매립장 수명을 연장하고, 향후 생활폐물 에너지화 시설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건설도시위원회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장복덕)는 지난 7월 28일 간담회를 개최해 집행부로부터 북부해수욕장 자연테마거리 편의 및 부대시설 설치사업 용역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건설도시위원회 의원들은 북부해수욕장 자연테마거리는 포항의 랜드마크가 될 시설인 만큼 풍향, 염분 등에 대한 내구성 등에 신중한 검토를 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타 도시의회의원, 포항국제불빛축제 대거 참여



지난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된 제8회 포항국제불빛축제 현장에 일본 후쿠야마시 의회, 울산동구

의회를 비롯한 광양시의회, 부안군의회, 김천시의회, 고령군의회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번 축제에 함께한 타도시의회 의원들은 이상구 의장을 비롯한 포항시의회 의원들의 영접을 받고 올해 여덟 번째로 개최되는 '포항국제불빛축제'를 각 지역의 축제와 비교함으로써 지역축제를 문화관광 산업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방향을 모색하는 데 노력했다. 이어 포스코, 죽도시장, 해맞이공원 등을 견학함으로써 각 도시와 긴밀한 우호관계 도모는 물론 우리 포항이 문화교류의 장으로 위상을 떨치는 데도 기여했다.

▶ 독서의 달 기념 원복 저자 초청 강연회

- 행사일시 : 2011. 9. 24(토)
- 행사장소 : 포항시청 문화동 대강홀
- 행사내용 : [아프니까 청춘이다](2011년 포항시 원복) 저자 강연 및 사인회
- 부대행사 : 알뜰도서 교환전 등
- 문의처 : 포항시립도서관(270-5673)

▶ 8월 포항시민 교양대학 개최

- 개최일시 : 2011. 8. 31(수) 오후 2시
- 개최장소 : 시청 문화동 대강홀(무료, 선착순)
- 강의주제 : 중년의 스트레스와 건강
- 강사 : 이근덕(신경정신과 전문의)
- 문의처 : 시 새마을평생학습과(270-2864)

▶ 차량 취득세 감면 신청 안내

- 다자녀 양육자 취득세 감면
 - 대상자 :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하는 자
 - 대상차량 : 승용차량(6인승 이하) 취득세 140만 원까지 감면, 승차정원 7~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화물 및 이륜 자동차
- 장애인, 국가유공자 취득세 감면
 - 대상자 : 장애 1~3급(시각 4급 이상),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등급, 고엽제 환자 경도장애 이상의 해당자
 - 대상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 및 이륜 자동차
- 주의사항 :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됨 (30일 이내 감면받은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
- 문의처 : 차량등록사업소(270-5588~9)
남구세무과(270-6231), 북구세무과(240-7231)

▶ 선거 기부행위 상시 금지 안내

- 기부행위 제한기간 : 상시(언제나 1년 365일)
- 과태료 부과 근거 :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6항
- 과태료 부과 대상 : 추석 인사를 빙자하여 추석선물 등을 제공받는 행위, 물품 음식물 서적 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는 행위, आय회 관광모임 체육대회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금전 등을 제공받는 행위
- 과태료 부과 금액 :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최고 3천만 원)
- 문의처 : 포항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안내 및 위반 신고는 국번 없이 1390)

▶ 9월 시민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안내

- 상담일시 : 2011. 9. 19(월) 14:00~17:00
- 상담장소 : 시청 법률상담실(지하 1층)
- 상담분야 : 시민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
- 상담방법 : 변호사 대면상담, 전화(270-2042)나 팩스(270-2030) 예약 후 상담실 방문(시홈페이지 사이버 법률상담실 상시 운영)

▶ 2011년 포항시 모바일 앱 공모전

- 참가자격 : 초·중·고생, 대학(원)생 및 일반인(기업 제외)
- 공모분야 : 스마트폰 서비스용 앱 프로그램 개발
- 참가방법 : 포항시가 보유한 공공정보 중 1개 이상을 활용, 앱(또는 웹)으로 개발하여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스마트폰용 앱 프로그램 (개발 소스 포함 CD로 제출)
- 접수기간 : 2011. 8. 1. ~ 10. 31.
- 접수처 : 포항시청 정보통신과
- 제출방법 : 신청서는 메일로 제출(palge@korea.kr), 방문 또는 우편 가능, 스마트폰용 앱 프로그램 CD는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심사발표 : 2011년 11월 중(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 시상내용 : 최우수상(1팀) 500만 원, 우수상(3팀) 각 300만 원, 장려상(4팀) 각 100만 원
- 기타문의 : 포항시 정보통신과(270-2284)

▶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변경

- 시행일 : 2011년 12월 9일부터 적용
※ 현재 소지자는 운전면허증에 표시된 기간에 적성검사 및 갱신해야 함
- 변경내용 : 적성 검사·갱신 기간 10년으로 연장, 70세 이상인 경우 5년마다 적성검사, 시력검사만 의사가 실시(나머지 항목은 자기 신고서로 기재), 신체검사서 외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진단서로도 신체검사 대신
- 문의처 : 도로교통공단 포항운전면허시험장(292-6740)

▶ 포항~대구 시외버스, 대포고속도로 운행

포항~대구 무정차 시외버스가 8월 13일부터 포항~대구 고속도로로 운행한다. 시외버스가 대포고속도로를 운행하게 되면 평균거리가 기존 구간에 비해 10여 Km 단축되고 시간은 10여 분 절약된다. 이에 따라 현재 운행요금인 7,400원인 포항~동대구 구간이 6,700원으로 700원 인하되며, 포항~서대구 구간은 7,900원에서 7,300원으로 600원, 포항~북대구 구간은 7,900원에서 7,100원으로 800원이 인하된다. 운행횟수는 1일 포항~동대구 90회, 포항~서대구 30회, 포항~북대구 12회로 변동이 없다.

▶▶ 이동지구 일방통행 시행

- 무질서한 주차로 인한 교통정체 해소
- 일 시 : 9월 1일부터 시행
- 구 간 : 이동지구 경성휴타운 앞 ~ 이동농협 뒤 상가
- 일반통행 시행 구간도



▶▶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포항시 문화의 날

- 일시 : 2011. 8. 27(토) 10:00~15:00
- 장소 : 천마공연장
- 내용 : 세계와 소통하는 영일만 르네상스
해병대의장대 시범, 축하공연, 홍보부스 운영
(로봇체험, 특산물, 관광)



▶▶ 이주여성 프로그램 <엄마는 숙제 도우미> 운영

- 모집대상 : 이주여성 중 초등생 학부모 우선
- 모집인원 : 선착순 30명
- 운영일정 : 2011. 9. 7 ~ 10. 28
- 수업일시 : 매주 수 · 금요일 10:00 ~ 12:30
- 교육비 : 수강료(무료), 체험 2회 20,000원(자부담)
- 수업내용 : 초등학교 교과과정 일기, 독후감, 동시, 생활문, 설명문 외에 역사(외국인을 위한 한국역사, 문화), 교과서 역사 탐방(경주, 김해 예정)
- 수업장소 : 꿈 · 찾 · 아창의독서논술연구소
- 상담문의 : 010-4498-1110(정난향)

▶▶ 경북 출신 학도의용군을 찾습니다

- 경상북도 6·25전쟁 참전 학도의용군 증언론 발간에 따라 경북 출신 학도의용군을 찾고 있습니다
- 문의처 : 도청 사회복지과 보훈선양담당(053-950-2834~5)
시청 저출산고령화대책과 보훈담당(270-2942~3)

▶▶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응원 가요



- 포항시민 단체응원 일정
 - 일 정 : 8월 29 · 30일, 9월 1 · 2일(4일간)
 - 참 가 : 매일 300명 총 1,200여 명
 - ※ 포항시 로고가 들어간 티셔츠 착용
- 포항시 홍보부스 운영
 - 일 정 : 2011. 8. 27 ~ 9. 24(개막일에서 폐막일까지)
 - 장 소 : 메인 스타디움 동편
 - 내 용 : 물회, 과메기 등 지역 농수산 특산물
- 포항시 시티투어 운영
 - 일 정 : 2011. 8. 27 ~ 9. 24 (개막일에서 폐막일까지)
 - 접 수 : 포항시 홍보부스 현장
 - 내 용 : 경주세계문화엑스포와 연계해 운영



어르신 영정사진 찍어드리고 삼계탕 제공



제철동주민센터는 자매부서인 POSCO 압연설비그룹(그룹장 이경조)의 협조를 얻어 경로당 어르신 33명에 대해 '영정사진 찍어드리기 행사'를 개최했다. POSCO 압연설비그룹은 초복을 맞이해 제철동 관내 3개 경로당(인덕·우방·제철경로당)을 방문해 점심식사로 어르신들에게 삼계탕 110인분을 제공했다. 또 37명의 자원봉사단은 제철동 공단 도로변 화단에 풀베기 작업 활동도 펼쳤다.

자매결연 마을과 단체, 돈독한 우정 과시

기계면 계전리 자매결연 단체인 해송로타리클럽(회장 우현근)은 계전리 어려운 가정에 연탄 1,000장을 지원하고 신체장애인 사무실에 에어컨 1대를 설치했다. 한편 자매마을인 계전리는 해송로타리클럽 하계수련대회에 참석해 돼지 마리를 기증하는 등 돈독한 정을 나누고 있다.



포항시장학회 장학금 기탁자

- 포항문화원(원장 권창호) 임직원·문화가족 336만6천 원
- 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임영대) 시상금전액 100만 원
- 현대자동차 흥해대리점(소장 최영환) 100만 원
- 포항 온누리신생약국 한정자 약사 100만 원
- 죽도시장번영회 500만 원
- 이룸유치원(이사장 최영식) 바자회 수익금 31만3,000원
- 포항출신 황보기 재일교포 1,000만 원

우리고장 기업탐방 - 유니코정밀화학

화학제품에 가치를 창조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지난 1976년에 설립되어 올해로 35주년을 맞는 유니코정밀화학은 '화학제품에 기능과 가치를 창조하는 기업'으로 업계에 알려져 있다. 포항 본사를 비롯해 광양, 전주, 해외지사를 두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258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해외시장 개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300만 달러 수출도 달성했다. 특히 유니코는 연구중심 기업이다. 지난 1998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해 수질·환경·표면처리 분야의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매출액 대비 6% 이상의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실용기술과 미래 세대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환경친화적 선도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POSCO가족 통합환경경영체제 구축에 발맞추어 품질·환경 방

침과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지난 2006년에 이미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인증을 획득했고, 친환경제품·기술개발에 매진해 환경친화형 제품을 개발 공급하고 있다.

친환경 흑색 또는 문수지 개발에 따른 수요 확대로 내지문수지 대량생산을 위해 설비증설 및 고성능 고품질 탈황제 공급을 위한 설비투자를 완료했다. 기업 역사와 함께한 생산 공장 신·증축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른바 명품공장의 탄생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쾌적한 근로 환경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포스코 PCP봉사단 활동을 비롯해 노인요양시설인 정애원에 10여 년간 생활용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포항시장학회 장학금 기부, 포항지역 15개 동사무소에 사랑의 쌀 기증, 송도 푸드마켓 지원, 사랑의 집짓기, 저소득층 자녀의 수학여행경비 지원 등 다양한 지역사랑 활동을 통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꿈을 꾸다 1 | 97.5x162

꿈을 꾸다, 일상으로부터

내 작업은 주변의 일상에서부터 시작된다. 안개가 자욱한 듯 흐릿한 평범한 도시의 일상에서 꿈꾸고 사는 우리들 삶을 이야기한다. 때론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모호한 꿈을 꾸는 공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심리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일상적 풍경을 모티브로 삼아 표현한다. 어떻게 보면 삭막하고 따분한 일상들, 풍경들. 그것이 주제이고 내가 바라보는 마음의 이야기들이다. 도시의 일상적 풍경을 감정 유발을 최소화하고 공허함과 몽환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 화면을 무채색의 스프마토(Sfumato)기법으로 표현하고, 단순 묘사된 연초록 나무는 그 속에서 일상의 삶과 희망을 꿈꾸는 사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현대인들의 심리를 이야기하기 위해 비슷비슷한 일상의 풍경을 펼치는 눈앞의 존재를 화면에 나타내 다른 조건과 관계 지음으로써 마음속 또 다른 대상의 존재로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한다. 그것은 현실입과 동시에 꿈이기도 하다.

이종길

2001 국립 창원 대학교 예술대학 서양화 졸(2001) | 2010 계명대학교 예술대학원 수료 | 2011 아트대구 국제아트페어(대구 EXCO) | 2010 화두, 그 끝없는 물음전(포항 문화예술회관, 서울 아 이갤러리) | 2010 BEAUTIFUL ASS(안산 단원미술관) | 2010 대한민국 청년초대작가전(일산 KINTEX) | 2009 포항시립 미술관 개관전(포항 포항시립미술관) | 2007 형상의 맛과 멋-100호전(포항, 포스코갤러리) | 2006 Summer Festival 지역대표작가 기획초대전(서울 오프라갤러리) | 현 한국미협, 현상회, 아르인회화협회, 포항청년작가회

한가위



한 해의 풍요로움이 가득한 한가위를 맞아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소중한 가족과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이웃들에게도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 나누시길 바랍니다.
항상 변함없는 성원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